

신행 · 교육 · 포교 · 문화 4박자 ‘척척’



백제불교문화대학 학생들의 수계식 모습. 백제불교문화대학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자를 양성해내고 있다. 사진제공=백제불교문화대학

▷ '하나' 되는 신행

대전에는 도청불자회, 시청불자회, 5개 구청 불자회, 충남지방경찰청 불자회와 5개 경찰서 불자회, 대전불교신약회 등 11개 불자 신약회, 교수불자회, 대전불교인문인회, 거사탑회 등 43개의 각급 신행단체 연합체인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김종완)가 있다.

내년부터는 대전의 단위능협 불자회와 각 지역 균형 불자회 창립에 착수해 외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백제불교문화대학 개관 10주년이 되는 2010년에는 적어도 60~70개의 신행단체가 협의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신행단체협의회회의의 모체는 백제불교문화대학이다. 협의회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모두 백제불교문화대학의 주도 아래 이뤄진다. 신행단체협의회회의와 백제불교문화대학은 '한 몸'인 셈이다.

이들 신행단체들은 매월 한차례 백제불교문화대학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활동방향을 논의하며, 봉축행사 등 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모여 회의를 한다.

또 각 신행단체들이 개별 행사시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다.

▷ 기를 다지는 교육

백제불교문화대학의 불자교육은 초보불자를 위한 기본교육과 백제불교문화대학(학장사제동), 대학원을 통한 전문교육으로 이뤄진다. 이외에 비불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 강좌'도 매 주 한 차례 진행된다.

백제불교문화대학에는 핵심교리, 한국·인도·중국 불교사, 불교의례, 불교철학, 화엄사상, 선사상 외에 불교 음악·미

술·문화·무용·연극·영어 등 다양한 문화강좌가 마련돼 있어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 백제불교문화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이 교리 외에 불교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이런 교육과정 덕분이다.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만도 1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크다.

▷ 시민에게 다가가는 포교

매년 9월경 열리는 포교전진대회 외에도 백제불교문화대학은 다양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백제불교문화대학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행정중심지이자 아파트촌이

밀집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올해 개원한 '백백 아카데미'다. 지역민 포교를 위해 마련된 백백 아카데미는 현재 경전과 불교의식 등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선방과 다도교실, 요가 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백제불교문화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중구와 서구 외에 동구·유성구·대덕구에도 연차적으로 백백 아카데미를 설립해 포교의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한해 30명 가량 배출되는 포교사 수도 50명 선으로 늘려 현재 포교사단이 각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을 배가시키는

동력있는 불자로 자리잡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화시켜놓고 있다는 점이다.

신행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포교전진대회에 참가한 '비불자'들은 백제불교문화대학에서 불교기초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3개월 과정의 기본교육을 마치면 백제불교문화대학에서 운영하는 백제불교문화대학으로 유동된다. 이들은 불교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계를 받고 조계종에 신도 등록을 한다. 그리고 1년간 공부한 뒤 원하는 사람은 조계종 포교사로서 시험을 치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백제불교문화대학에서 한 해 배출되는 포교사는 30명에 이른다.

그 뒤 다시 남은 1년 간의 불교대학 과정을 마치고 백제불교문화대학 대학원 과정에 들어간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경전을 심도있게 공부한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포교사들은 대전 충청 포교사단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불자들은 각 직장·직능별 신행단체에 가입한다. 동시에 이들은 백제불교문화대학이 자랑하는 대전의 43개 신행단체 연합체인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 일원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권유로 불자가 된 것처럼 주위 사람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 나선다.

대전충청 포교사단 단장이자 백제불교문화대학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호 교수는 "신행에 포교가 있고, 포교에 문화가 있고, 문화는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교육은 신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백제불교문화대학의 특징"이라며 "백제불교문화대학은 대전을 넘어 충남불교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042537-8215)

한명우 기자 mwah@buddhapia.com

대전불교의 요람 '백제불교문화대학'

대전 불교의 중심도량 백제불교문화대학(관장 장곡)이 9월 포교전진대회를 앞두고 프로그램 기획과 불교단체 간 협조체제 점검으로 바빠지기 시작했다. 포교전진대회는 대전의 불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참가하는 비불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포교 한마당.

이 포교전진대회를 계기로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만도 한 해 평균 2000여명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다. 포교전진대회가 대전에 불교를 심고, 불자를 양성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문을 연 이래 6년 동안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면서 불교 불모지 대전을 '신행 도시'로 바꿔놓은 백제불교문화대학. 그 '비결'은 신행·교육·포교·문화 네 가지가 튼튼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있다.

▷ 각종 불교 문화 강좌 '인기' 백제불교문화대학의 각종 불교문화 강좌는 전국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백제불교문화대학의 특징이다. 여기에 격년

매년 포교전진대회 개최... 200명 불교입문 43개 단체의 활동 주무대, 수시로 모여 회의 6년만에 불교 불모지를 '신행도시'로

으로 열리는 예술제와 문화제는 불교문화를 통해 대전에 불교를 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예술제는 불교대학 학생들의 합창과 승무 등의 공연으로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제는 올해 6월 열린 제3회 불교문화 학술·문예 대축제에서 보듯이 학술과 문화공연을 종합한 형태로 열린다.

▷ 한 사람의 불자가 탄생하기까지

백제불교문화대학이 다른 지역의 불교대학이나 사찰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한 사람의 불자를 탄생시키고, 이 사람이 신심깊고 활

하면서 특별부장을 맡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특별활동 과목을 편성하고, '방과 후 학교'나 학예발표회, 학생작품 전시회와 같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역시 가장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은 학생들 지도.

"정도를 넘어서는 학생들이 많아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온갖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다보니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행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제 태도에 문제가 없지 않지 않을까요?"

다고 생각했죠." 2000년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부터 이 교사는 아이들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애심'이 충만해졌고 지금은 과거보다 한결 편안하고 성숙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해심 많은 선생님'으로 통한다.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오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들 입장에 서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억부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포기하

지 않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성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자가, 교사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학교든 교사들 사이에도 갈등은 있다. 하지만 이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다. 성격이 툭툭툭툭한데, 웬만한 것은 이해하고 웃으며 넘어간다. 동료 교사들로부터 "명상을 해서 그렇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도 부처님 일입니다. 더욱더 보람이 있죠."

글 · 사진=한명우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학생 입장에 서서 대화합니다"

서울 하계중학교 이미지 교사

서울 하계중학교 이미지 교사(48)

는 1982년 교단에 첫 발을 디딘 이후 26년째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왔다. 하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지는 5년째.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는 비교적 편안한 직업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개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각종 교무업무에 자기계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이미자 교사는 2학년 수학을 담당

하고 생각했죠."

2000년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부터 이 교사는 아이들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애심'이 충만해졌고 지금은 과거보다 한결 편안하고 성숙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해심 많은 선생님'으로 통한다.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오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들 입장에 서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억부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포기하



이미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만큼 학생들에 쏟는 정성이 남다르다.

이 과정은 모두 마치면 포교사들은 대전 충청 포교사단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불자들은 각 직장·직능별 신행단체에 가입한다. 동시에 이들은 백제불교문화대학이 자랑하는 대전의 43개 신행단체 연합체인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 일원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권유로 불자가 된 것처럼 주위 사람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 나선다.

대전충청 포교사단 단장이자 백제불교문화대학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호 교수는 "신행에 포교가 있고, 포교에 문화가 있고, 문화는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교육은 신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백제불교문화대학의 특징"이라며 "백제불교문화대학은 대전을 넘어 충남불교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042537-8215)

한명우 기자 mwah@buddhapia.com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업신주 독송

능업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각종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회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방담 ● 경찰서 방담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도산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부산 대구 미얀마 **차대법당**
무엇든 물어보세요 **018-789-5008** 안성

간(肝)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용져 97마니를 달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떨어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마를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유방한의원 원장인 유방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들과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무리가 오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유방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시어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6
입금구좌: 농업 100023-56-156761(조영숙)